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062-520-2552~5 SMART 동강대학

光州日報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정기예금 1년 5.11%(복리)
동양지축은행 | 226-0180

광주 1/6℃ 목포 1/4℃ 여수 4/7℃
단기 4344년 (음력 1월 1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905호 1판 2011년 2월 17일 목요일

광주지역 고교 '야자' 단축

〈야간 자율학습〉

심화반·0교시 수업 금지

시교육청, 중학교는 전면금지…3월 시행 앞두고 사교육 조장 우려

광주시교육청이 고교의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단축하고 심화반 운영과 정규 교과 외 '0교시 수업'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입시를 앞둔 고교생들의 토요일·공휴일 자율학습 시간을 크게 감축하고, 중학교에서 전면금지한 것은 결국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광주시교육청은 16일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운영시간 대폭 단축 등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에 주로 적용될 이 방안에는 8시 이전 등교금지(1,2학년)와 학교 자율에 맡겼던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기존보다 1~2시간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교의 경우 평일 1,2학년은 오후 9시, 3학년은 10시를 넘길 수 없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1,2학년은 전면금지, 3학년은 오후 5시로 제한된다.

정규 수업 이후에 진행되는 방과후 수업은 오후 7시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선행학습이나 교과진도도 나갈 수 없다. 중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외 평일·토요일·일요일 야간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된다.

시 교육청은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의도하지 않는 사교육 조장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공교육에서 맡아온 교육의 일정 부분을 가정에 맡기면 부모들이 결국 아이들을 사설학원으로 보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선 고교에서는 학생들을 밤10시~11시까지 관리해와 학생들이 학원 등에 갈 시간 자체가 없었다.

한 학부모는 "입시를 코 앞에 둔 아이를 토·일요일 오후 무작정 독서실에 보내거나, 집에서 공부시키라는 얘긴데, 사설 학원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부모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일선 학교는 '심화반' 금지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준별 맞춤수업이 이뤄지는 심화반을 없애고 한 반에서 일률적인 교육을 하면 교사들이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상위권 학생 위주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머지 학생들은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고교 3학년 담임 교사는 "전국 모든 고교가 이르면 2학년2학기, 3학년 초까지 선행학습 등을 통해 고교과정을 마치고 수능 시험 문제 풀이 등에 총력을 쏟는 게 현실"이라며 "광주에서만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도 느긋하게 교과 수업을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교육계에서는 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의 운용을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못박는 것은 자율권을 무시한 조치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의 한 고교 교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교육 방안이 사실상 공교육을 포기하고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특히 교육청의 정책이 일선 교육현장과 너무 동떨어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꽃소식 봄소식 졸업시즌을 맞아 꽃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낮 최고기온이 9도까지 올라간 16일, 강진군 군동면 쌍덕리 '스타티스(statice)' 재배 시설하우스에서 장일호(53)씨 부부가 만개한 꽃을 수확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올 영암 F1 도대체 어떡하려고…

정부 비협조에 전남도·지역의원들 정치력 부재

경주장 감정평가도 마무리안돼 준공 지지부진

올 영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대회가 정부의 비협조에 전남도 및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까지 겹치면서 험로(險路)를 예고하고 있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는 16일 "한국농어촌공사와 KAVO간 추진해왔던 영암 F1 경주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5월까지도 경주장을 준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현재 카보와 농어촌공사는 F1 경주장 부지(185만3000㎡·56만평)에 대한 양수·양수 협약을 맺고 감정평가를 거쳐 가격을 결정키로 했지만 농어촌공사가 추천한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를 포기하면서 양도·양수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경주장 건설 공사 지연으로 준공 절차를 밟지 못하면서 F1 대회 이후 경주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포기했던 지난해 전례를 되풀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당장, 기아차 K7과 외국 명품자동차의 비교시승회가 다음달 2일 예정된데다, 한국타이어의 DDGT 대회가 한 달에 한차례씩 6번 예정돼 있고 넥센 RV 챔피언십(6차례), CJ 슈퍼레이스(6차례), 현대 스피드 페스티벌(4차례) 등 20여개 대회가 잇따라 열릴 계획인 만큼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경주장 임대료 수익은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어 국가 브랜드 홍보에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회를 지나치게 홀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농림부의 경우 전북도와 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산단 부지 양도·양수 과정에서 기반시설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변경, 땅값을 낮춰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서도 F1 경주장 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 홀대도 심각하다. 정부가 애초 지원을 약속했던 F1 경주장 건설비 358억원은 아예 없던 일로 됐고 그나마 대회 운영비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2011 F1 대회 취소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일각에서는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를 질타하고 있다. 새만금의 경우 전북도가 청와대를 비롯,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줄기차게 찾아다니고 유권해석도 의뢰, 평가기준을 변경시켰다는 점을 들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남의 국제인지도를 높이고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대회임에도 불구, 지역 정치권이 지역구 사업에만 '올인'하면서 F1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정치권이 성공개최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올해 '쉬운 수능'…영역별 만점자 1%로

교과부 "EBS 연계 문제 비틀지 않겠다"

올해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1%를 유지하도록 난이도가 낮춰져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과 EBS교재의 체감 연계율이 강화되며 총 45권에 달하는 언어·수리·외국어 교재는 절반 수준인 24권으로 크게 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수능-EBS 연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난이도 편차가 심했던 수능은 올해부터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1%로 유지되는 수준에서 쉽게 출제된다. 최근 2년 동안 치러진 수능에서 국어, 수리 등 주요 영역 만점자가 1%에 크게 못미쳤기 때문에 '만점자 비율 1%'는 난이도의 큰 폭 하락을 뜻한다.

'어려웠다'고 평가된 2011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만점자 비율은 언어 0.06%, 수리 가형 0.02%, 외국어 0.21% 등이었고 '쉬웠다'는 2010학년도 수능은 외국어 0.74%, 수리 나형 0.84% 등이었다.

교과부는 쉬운 수능을 위해 수능과 EBS교재·강의의 연계율을 70% 수준으로 유지하되 지난해 처럼 문제를 '지나치게 비틀어'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EBS는 자체교재가 현재 언어 10권, 수리 가형 17권, 수리 나형 7권, 외국어 11권 등 모두 45권에 달해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 각각 6권, 8권, 4권, 6권 등 총 24권으로 줄일 방침이다. 수능 전 영역으로 보면, 총 95권이 60권으로 줄게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감사원장에 양건 교수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공석중인 감사원장 후보에 양 건(64)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관련기사 4면〉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양 후보자는 행정부에서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 전파하고 솔선수범해온 경험과 외유내강의 리더십, 그리고 추진력과 업무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세평을 종합해볼 때 감사원장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자는 함북에서 출생,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을 지냈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양 후보자에 대한 약식 자체 청문회를 진행,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소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장은 지난해 9월 김황식 당시 원장이 국무총리로 임명된 뒤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올해 1월 후임으로 내정됐으나 자격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또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백운현 전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55)과 오준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가 각각 내정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Start Now, Lead Tomorrow!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과정 제15기 모집
○ 모집대상
CEO, 금융인, 고위공무원, 정치인(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법조인, 언론인 등
○ 원서교부 및 접수 기한
2011. 2. 18(금) 18:00까지
전남대학교행정대학원 (http://www.cnugpa.kr)
문의처 : 전화 (062) 530-5196

■ 위 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 번지
■ 코스규모 :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 VIP정회원
– 입회금액 : 3억3000만원 – 모집인원 : 20명
– 회원특전 :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일 1회 18홀기준),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일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무기명카드 1매발급 : 그린피 50%할인
※ 계약시 :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제공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 해피정회원
– 입회금액 : 1억원 – 모집인원 : 49명
– 회원특전 : • 공통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선택 – A형, B형, C형 중 선택(1)
A형 지정회원 1인 준회원대우(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B형 지정회원 미선택시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우대혜택
C형 무기명카드 1매 : 그린피 50%할인(연 60회 사용, 1일 1회)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혜택 없음, 지정회원 없음.
※ 계약시 :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제공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 주중 / 평일회원
– 입회금액 : 3300만원 – 모집인원 : 50명
– 회원특전 :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선 할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 VIP회원 및 해피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가입문의 Tel. 061-330-5001~4 Fax. 061-330-5009